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 행동유형

The Types of Marital Problem Solving Behaviors Among Korean Married Men and Women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 崔 惠 卿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Assistant Prof. : Hye-Kyong, Choi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 盧 致 英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Ph.D Candidate : Chi-Young, Noh

본 연구에서는 기혼 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행동을 유형별로 분류해보고 이 유형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기혼남녀 506명(남자 275명, 여자 231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우리나라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행동 유형은 긍정적-부정적, 적극적-소극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분류된다. 2) 기혼남녀를 비교해볼때, 수동적 문제해결행동 유형을 제외하고는 문제해결행동 유형에 성차이가 있다. 3) 기혼남녀 모두 부부간 문제해결행동 유형별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4) 기혼남녀 모두 문제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적극적-부정적 차원에 속하는 문제해결행동 유형들을 보인다.

I. 서 론

가정폭력이나 가족해체의 현상들에서 보듯이 현대사회에서는 부부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Skolnick & Skolnick, 1986). 부부관계에 관심을 두는 연구들은 부부에게 발생되는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부부관계의 유지 또는 해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Snyder, 1979). 개인상담이나 가족치료분야들도 상담이나 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부들의 절반정도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보인다(Rettig, 1993)고 보고하므로써 부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부부관계의 건강한 적응과 관계가 큼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부부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용통성 있고 효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Guerney, Guerney & Cooney, 1985). 그러나 이들은 단편적인 기술이나 행동변화에 집중되어 있고 포괄적인 부부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연구들에서 문제상황이나 문제해결을 정의하는 개념이나 측정도구가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문제해결이라는 개념속에 스트레스 대처, 갈등해결, 그리고 의사소통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서로 혼용하여 사용해왔다(송말희, 1990; Putnam & Folger, 1988; Christensen & Shenk, 1991)는 점이 여러연구들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Sabourin, Infante & Rudd, 1990; Witteman, 19

88). 즉 각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에 포함된 내용들이 서로 중복되어 있고, 심각한 문제를 겪는 부부들과 그렇지 않은 부부들을 판별해주는 행동유형의 분류에서도 서로 중복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개념들은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연구결과를 서로 비교하기가 어렵고 변화에 적응해나가는 다양한 행동들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연구상의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상황과 문제해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아울러 다양한 행동들을 포괄하는 문제해결행동의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에 대한 해결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행동반응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처, 갈등해결, 의사소통의 개념들을 내포하는 부부간 문제해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문제해결행동 유형들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제해결행동 유형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틀

1. 부부문제 및 부부간 문제해결

문제란 개인이 바라는 목표와 현실상태간의 지각 불일치로 정의되며, 개인이 더 이상 문제를 느끼지 않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목표상태와 현실상태간의 불일치를 줄이는 과정을 문제해결이라고 정의한다(Witteman, 1988). 특히 문제해결은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반응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문제해결 과정이 개인의 적응에 중요하다고 본다(Sabourin et al, 1990).

이러한 맥락에서 부부문제는 부부 내적 혹은 외적 사건에 의해서 부부관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부부간 문제해결은 위협을 받는 부부관계의 현상태를 변화시켜 두 사람이 바람직하다거나 안정된다고 여기는 부부관계의 목표상태에 가깝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부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효

율적인 문제해결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처능력 향상(Berg & Miller, 1993)과 관계적 차원에서의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 기술향상(Guerney et al., 1985)을 중요한 변수로 구성하고 있다. 각각의 개념들은 결국 부부가 문제상황에 직면하여 적응을 높이려는 모든 행동반응이라는 점에서 문제해결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 실례로 비효율적 대처행동을 보이는 우울증 환자들이 사회적 대인관계에 문제를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Marx & Schulze, 1991)는 대처가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과 관계 있는 반응행동임을 시사하며,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 병리적인 현상을 보일 뿐 아니라(Vincent, Weiss, & Birchler, 1975), 건설적인 의사소통에 의해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높고 그 관계가 더 발전한다는 연구들(Knudson, Sommers & Golding, 1980)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부부문제에 직면하여 부부관계를 재정립해주며, 유지, 강화시키는 문제해결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갈등은 두 사람중 어느 한편이 상대방을 방해물로 인지하는 상황을 지칭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방해가 된다고 인지하는 상황뿐 아니라 부부공동체에 대해 환경적 자극이 주어지는 문제상황도 포함한다(Witteman, 1988)는 점에서 문제해결속에서 갈등을 다루어야 한다.

대처나 의사소통, 갈등해결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각각의 행동들을 다양하게 분류하여 그것들의 효율성을 비교해 왔다(Carver & Scheier, 1994; Mattlin, Wethington & Kessler 1992; Choi, 1992; Witteman, 1988; Canary & Cupach, 1988; Burggraf & Sillars, 1987; Miller, Lefcourt, Holmes, Ware & Saleh, 1986; 유은희, 1994; 송성자, 1985; 이정순, 1991).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대처는 효율적인 적응을 가져오는 긍정적 행동과 비효율적인 부정적 행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적 행동과 문제를 피하려는 회피적 행동으로 나뉘어진다(Carver & Scheier, 1994; Choi, 1992). 의사소통은 문제와 감정을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행동, 상대방의 기분을 호전시켜 간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 문제를 거부하거나 의논하지 않고

화제를 전환시키는 행동, 위협이나 적대적 의사표현으로 문제에 직면하는 행동 등으로 분류된다(Burggraf & Sillars, 1987; Witteman, 1988). 갈등해결도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을 존중하면서 갈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행동, 갈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책임을 피하는 행동, 갈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으로 분류되는데 (Canary & Cupach, 1988; Miller et al., 1986; 유은희, 1994), 갈등해결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폭력행동이 포함되는 특징이 있다.

대체적으로 이들 연구들은 적극적-소극적, 긍정적-부정적이라는 두 차원이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분류되는 경향이 있지만, 문제자체와 관계유지라는 측면이 혼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Rusbult, Johnson & Morrow(1986)는 문제와 관계유지를 연관시켜 문제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차원과 관계유지에 대한 건설적-파괴적 차원을 교차시켜서 4개의 갈등해결전략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해결에 적극적이면서 관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voice 유형, 문제를 변화시키는데는 적극적이지만 관계유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exit 유형,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지만 배우자를 지지하여 관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loyalty 유형, 문제해결을 기피하는 한편, 문제와 관계없는 것들을 들먹거리 관계를 손상시키는 neglect 유형. 이러한 분류는 우리나라 주부들 대상으로 부부들이 사용하는 갈등해결 방법이 건설적, 수동적, 회피, 신체적 폭력이라고 한 이 영숙(199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개념적 모델은 Kantor & Lehr(1975)의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가정과도 일치한다. 이들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어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수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대항하거나, 혹은 방관자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개념과 유형분류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부부간 문제해결행동이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측한다:

- 1) 문제상황을 변화시키며 관계성장과 유지를 추구하는 적극적-긍정적 문제해결행동 유형.
- 2) 문제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관계목표보다는

개인을 우선시 하는 적극적-부정적 문제해결행동 유형.

3)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보다는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소극적-긍정적 문제해결행동 유형.

4) 문제자체를 부인하거나 관계자체를 피하는 소극적-부정적 문제해결행동 유형.

2. 부부간 문제해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부부간 문제해결에는 성차이가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Thompson & Walker, 1991). 즉 부인들은 결혼생활에 대해 남편보다 더 민감하고 반응적이어서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남편에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를 긍정적, 부정적 표현을 통해 알려주고 자신을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때 남편은 부인의 요구를 보다 합리적이고 감정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고자 하며, 문제중심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되도록 논쟁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Thompson & Walker, 1991; Christensen & Heavey, 1990).

교육, 직업이나 소득상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사회관계망 등의 사회심리적 자원이 부족하여 다양한 반응목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상황에서 적용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1992). 우리나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김 정옥(1985)의 연구에서도 수입이 낮을수록 부부간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한다고 하였다.

또한 문제의 특성에 따라 문제해결 반응이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다. Matlin et al.(1992)의 연구에서도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대처하는 반면, 건강을 해치는 등의 위협적인 문제상황에서는 소극적인 회피를 사용하며, 장기적인 문제 상황에서는 종교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해결이 쉬운 구체적인 문제 중심 상황에서는 타협이나 설득 등의 긍정적인 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반면, 비구체적인 관계

중심 상황(예를 들어, 부부간에 어느 한편은 친밀하려고 애쓰는데, 상대방은 소원한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탄압이나 거부와 같은 파괴적인 전략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Rausch, Barry, Hertel & Swain, 1974).

이상의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부부간 문제해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

1) 부부간의 문제해결행동 유형에는 성차이가 있어서 부인들이 남편들보다 더 표현적이지만, 긍정적, 부정적 행동 모두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조화주구형은 아닌 반면, 남편들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행동을 많이 보일 것이다.

2)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회피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 반면, 유리한 사람들은 보다 다양한 반응행동을 취할 것이다.

3) 부부간 문제해결에 있어서 해결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해결가능성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보일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척도의 구성

본 연구의 문제해결행동에 대한 문항들은 억압, 감정이해, 긍정적 문제해결, 언어적 공격, 요구, 회피, 시위, 협박, 기물파괴, 신체적 폭력, 위협적인 도구를 이용한 폭력, 단독처리, 반성, 환심사기, 정당화, 거리두기, 의존적 행동, 심리신체적 해소, 대리해소의 19개 행동특성들을 나타내는 68개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4)'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이 문항들은 대처, 의사소통, 갈등해결 행동을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들 중에서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정한 WOC(The Ways of Coping Checklist; Folkman & Lazarus, 1980), CSQS(Communication Style Q-Set; Stephen & Harrison, 1986), CTS(Conflict

Tactics Scale; Straus, 1979)의 문항들과, 임상 사례, 일반 표본과의 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부부문제에 대해서는 친족관계 문제, 경제, 가사분담 등의 관리적 문제, 부부간 성격차나 대화 결여 등의 심리적 문제, 그리고 종교적 갈등이나 폭력, 외도 등의 위협적 문제를 나타내는 22문항을 구성, 각각에 대해 부부가 서로 대립하는 빈도를 측정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 506명(남자 275명, 여자 231명)으로, 대다수가 젊은 연령층(평균연령이 36.5세, 평균 결혼기간이 9.8년)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중산층(대출 이상이 70.5%, 월평균수입은 평균 150만원, 사무/기술직/전문직 및 경영관리직이 56.3%, 단순노무나 기능관련 근로직, 판매/서비스직이 7.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행동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3단계의 예비조사를 거쳤다. 우선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및 조사를 거쳐 개념적으로 유사한 문항들을 통합하였고, 다시 부부 10쌍에 대한 면접조사와 가족학 전공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행동으로 부적절하거나 모호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부 50쌍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하여 문항수정 과정을 실시함으로써, 최초의 169개의 문항들을 68개 문항으로 축소시켜 완성하였다.

본조사는 기혼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1993년 7월에서 8월에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우편수집과 조사자가 피험자를 방문하여 직접 회수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들은 506명 이었다(800명의 63.3%).

3. 자료분석 방법

문제해결행동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우선 문항들에 대한 군집분석을 하므로써 문제해결행동 요인들을 분류하였고, 이 요인들을 바탕으로 연구대상들에 대한 군집분석을 하므로써 문제해결행동 유형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ystat statistical package의 K-

means 방법을 실시하였다.

성에 따른 문제해결행동 유형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각기 달리 군집분석을 하여 결과를 비교하므로써 살펴보고, 각 유형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과 추후검증 방법인 Contrst를 통해 사회경제적 특성과 문제상황에서 부부가 대립하는 빈도를 비교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성에 따른 부부간 문제해결행동 유형의 분류

기혼남녀 각각의 문제해결행동 문항들에 대해 군집분석을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기혼남성의 부부간 문제해결 행동은 긍정적 행동, 회유적 행동, 공격적 행동, 위협적 행동, 방어적 행동, 유아적 행동, 폭력적 행동의 7가지 요인들로 분류되며, 기혼여성의 부부간 문제해결행동은 과시적 행동, 유아적 행동, 공격적 행동, 방어적 행동, 조화추구 행동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된다.

기혼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분류되는 문제해결 행동요인들 뿐 아니라 서로 함께 묶이는 행동특성들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우선 남성의 경우 환심사기, 억압, 거리두기가 회유적 행동으로 묶이는데, 배우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참아내거나, 냉정한 태도를 취하는 등의 행동들은 남편들이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내를 회유하는 방법들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환심사기가 긍정적 문제해결 행동들과 같은 요인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타인의 환심을 사는 행동을 바람직한 여성적인 행동으로 여기는 사회의 성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협적 도구를 이용한 폭력은 남성의 경우 다른 폭력적 행동특성들과 함께 묶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억압, 거리두기와 같은 요인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위협적 도구를 이용한 폭력은 여성의 경우 실제 폭력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자신이 힘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위하므로써 배우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과시적인 행동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밖에 남성과 여성의 유아적 행동요인을 구성하는 행동특성들이 서로 다르다. 남성의 유아적 행동은 남에게 의존하거나, 문제에 당면하여 심리신체적 증상을 나타내는 등의 행동으로 한국사회에서 성인 남성의 행동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지는 행동요인을 의미하며, 여성의 경우 단독처리나 의존적 행동, 대리해소는 여성에게 기대되는 조화추구 행동과는 반대의 미성숙한 행동이므로 유아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성에 따른 문제해결 행동 요인들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문제해결 행동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이 유형 분류에 근거하여 남녀 성차를 살펴보았다. 문제해결행동

표 1. 문제해결행동 요인과 그 행동 특성

성	문제해결행동 요인	행동 특성
남 성	긍정적 행동	감정이해, 긍정적 문제해결, 반성
	회유적 행동	환심사기, 억압, 거리두기
	공격적 행동	언어적 공격, 요구, 기물파괴
	위협적 행동	회피, 시위, 협박
	방어적 행동	단독처리, 정당화
	유아적 행동	의존적 행동, 심리신체적 해소
	폭력적 행동	신체적 폭력, 위협적인 도구를 이용한 폭력, 대리해소
여 성	과시적 행동	억압, 위협적인 도구를 이용한 폭력, 거리두기
	유아적 행동	단독처리, 의존적 행동, 대리해소
	공격적 행동	언어적 공격, 요구, 기물파괴, 협박, 신체적 폭력
	방어적 행동	회피, 시위, 정당화, 심리신체적 해소
	조화추구 행동	감정이해, 긍정적 문제해결, 반성, 환심사기

유형들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문제해결행동 요인들의 평균점수를 표준화(평균 0, 표준편차 1)시킨 후 각 유형의 특성을 그림으로 표시하였다(그림 1, 2).

기혼남성의 경우, 권위적 문제해결행동 유형(N=70명, 32.1%)의 특징은 다른 행동차원에 비해 공격적 행동, 위협적 행동, 방어적 행동을 많이 보이며, 수동적 문제해결행동 유형을 제외한 다른 유형들에 비해 긍정적 행동을 적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문제에 대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적게 하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도 적게 사용한다. 반면, 남성으로서의 위치를 이용하는 한편 남성적인 태도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문제해결행동들을 보인다.

이성적 문제해결행동 유형(N=67명, 31.7%)은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긍정적 행동과

회유적 행동을 매우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다른 유형들과 비교할때도 긍정적 특성을 지닌 행동들이 많이 보인다. 반면, 위협적 행동, 방어적 행동, 폭력적 행동 등의 부정적인 행동들은 매우 적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수동적 문제해결행동 유형(N=43명, 19.7%)에 속한 남성들은 다른 유형에 속한 남성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문제해결행동을 적게 보인다.

부정적 문제해결행동 유형(N=38명, 17.4%)은 긍정적 행동, 회유적 행동에 비해 다른 행동특성들을 훨씬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폭력적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다른 유형들에 비해 공격적 행동, 위협적 행동, 방어적 행동, 유아적 행동, 폭력적 행동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지는 행동특성들을 많이 사용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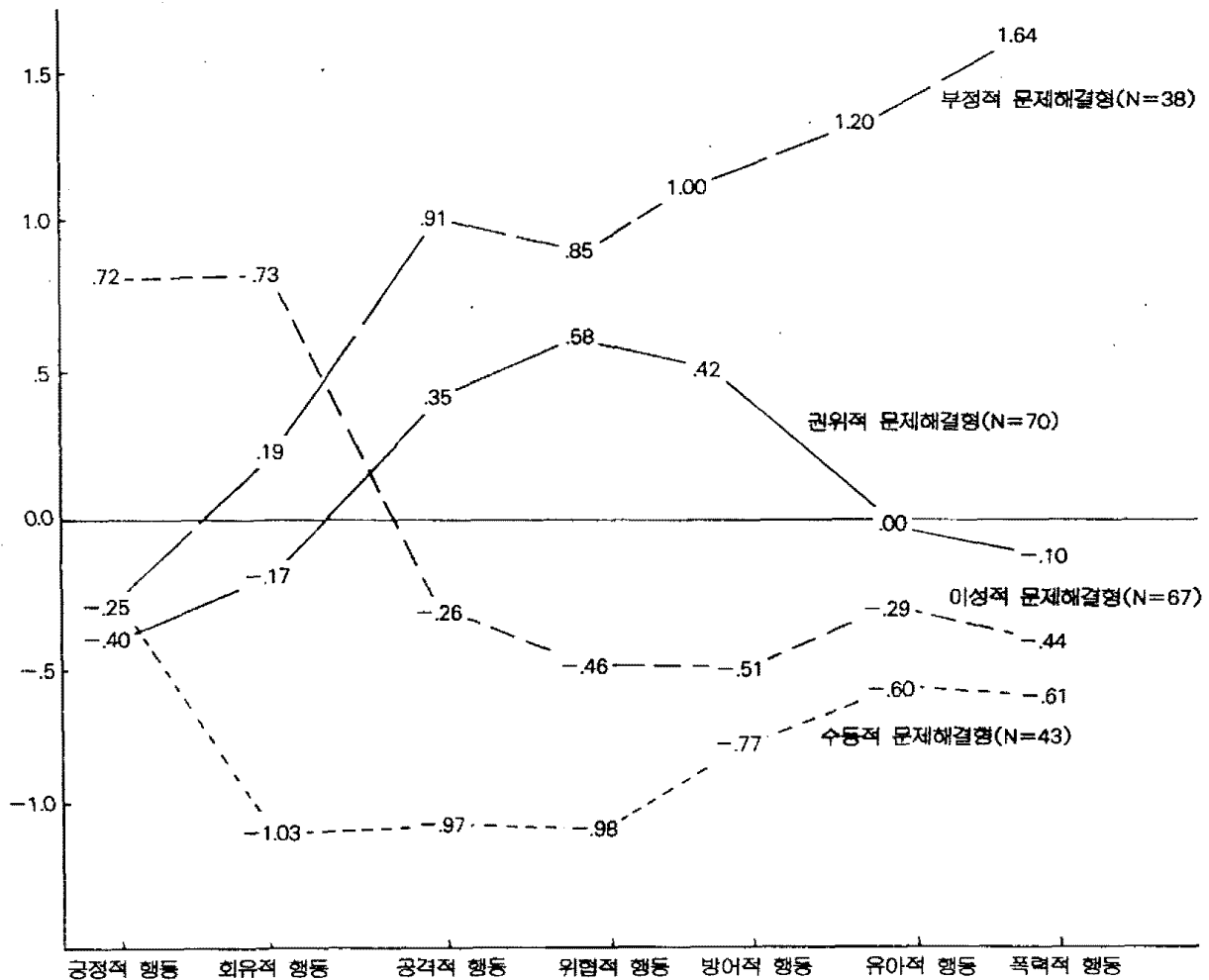


그림 1. 기혼 남성의 문제해결행동 유형(총 2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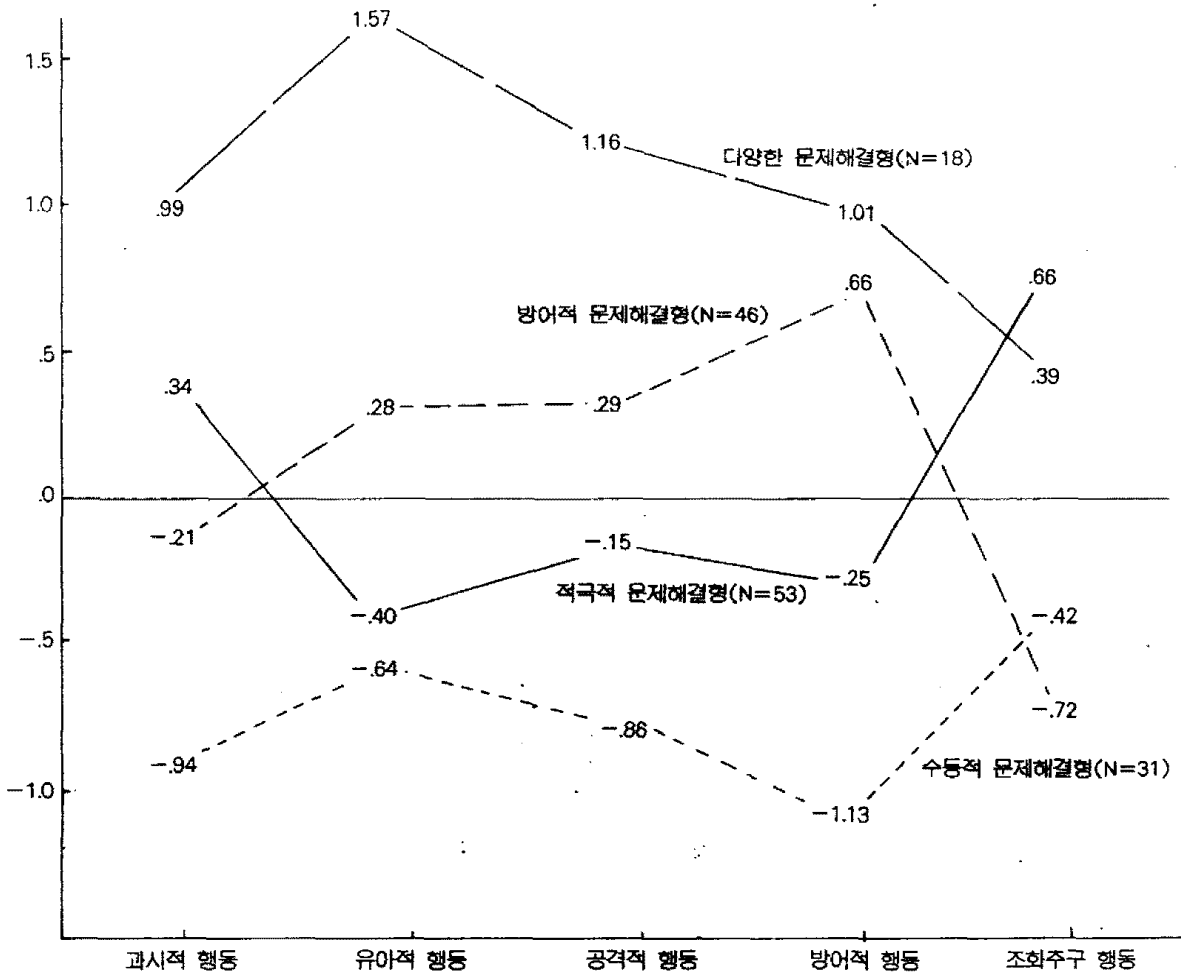


그림 2. 기혼 여성의 문제해결행동 유형(총 148명).

기혼여성의 경우, 적극적 문제해결행동 유형(N=53명, 35.8%)은 과시적 행동과 조화추구 행동을 많이 보이는 반면, 유아적 행동, 공격적 행동, 방어적 행동을 적게 한다. 특히 다른 유형들과 비교해 볼때 이 유형에서 조화추구 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기혼여성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 반면,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해 배우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과시하는 행동도 보이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 자세를 보인다.

방어적 문제해결행동 유형(N=46명, 31.1%)의 특징은 과시적 행동이나 조화추구 행동 보다 유아적, 공격적, 그리고 방어적 행동을 많이 사용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방어적 행동을 많이 보인다. 또한 다른 유형들에 비해 조화추구 행동을 가장 적게 보이는 반면 방어적 행동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유형의 여성들은 문제해결 상황이나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확신이 없어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해결 보다는 방어에 역점을 둔다.

수동적 문제해결행동 유형(N=31명, 20.9%)에 속하는 여성들은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유형의 여성들에 비해 문제해결행동을 적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

다양한 문제해결행동 유형(N=18명, 12.2%)에 속하는 여성들은 다른 유형의 여성들보다 대체적으로 모든 문제해결 행동들을 많이 사용하는 한편, 자체 내에서는 조화추구 행동을 가장 적게 하고 유아적 행동을 가장 많이 한다. 이 여성들은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다양한 행동을 시도한다(그림 2).

2.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문제해결행동 유형의 차이

문제해결행동 유형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각 유형집단 별로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혼남녀의 문제해결행동 유형은 교육수준의 차이(남성 : $F=.88, p=.46$, 여성 : $F=1.21, p=.31$), 수입의 차이(남성 : $F=2.03, p=.16$, 여성 : $F=.51, p=.68$)와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문제특성에 따른 문제해결행동 유형의 차이

표 2에서 보듯이 기혼남녀의 문제해결행동 유형 별로 경험하는 문제의 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문제의 특성에 따라 어느 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추후분석으로 Contrast를 실시한 결과, 기혼남성의 경우, 친족관계, 관리적, 심리적 문제특성으로 인해 부부가 대

립하는 빈도는 부정적 문제해결행동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권위적 문제해결행동 유형이었고, 이성적 문제해결행동 유형과 수동적 문제해결행동 유형은 특정문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위협적 문제특성에서는 부정적 문제해결행동 유형만이 다른 유형들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들의 경우 문제해결행동 유형별로 친족관계 문제특성을 제외한 관리적, 심리적, 위협적 문제로 부부가 대립하는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문제해결행동 유형이나 방어적 문제해결행동 유형이 적극적 문제해결행동 유형이나 수동적 문제해결행동 유형과 비교해볼때 모두 더 자주 관리적, 심리적, 위협적 문제로 배우자와 대립하는 빈도가 높았다. 특히 다양한 문제해결행동 유형은 방어적 문제해결행동 유형보다 더 많이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문제특성에 따른 문제해결행동 유형의 차이

성	문제 해결 행동 유형	문제 특성											
		친족관계 문제특성			관리적 문제특성			심리적 문제특성			위협적 문제특성		
		M (SD)	F	추후 검증	M (SD)	F	추후 검증	M (SD)	F	추후 검증	M (SD)	F	추후 검증
남성	권위적 문제해결형	0.37 (0.42)		B	0.45 (0.39)		B	0.60 (0.43)		B	0.10 (0.13)		B
	이성적 문제해결형	0.28 (0.28)		C	0.34 (0.31)		C	0.41 (0.40)		C	0.09 (0.18)		B
	수동적 문제해결형	0.19 (0.27)	7.06***	C	0.24 (0.31)	9.48***	C	0.36 (0.41)	8.46***	C	0.10 (0.19)	10.05***	B
	부정적 문제해결형	0.35 (0.40)		A	0.68 (0.54)		A	0.76 (0.36)		A	0.30 (0.31)		A
	적극적 문제해결형	0.36 (0.39)		A	0.40 (0.38)		C	0.64 (0.47)		C	0.13 (0.16)		C
여성	방어적 문제해결형	0.36 (0.42)		A	0.55 (0.43)		B	0.76 (0.45)		B	0.21 (0.39)		B
	수동적 문제해결형	0.32 (0.36)	0.82	A	0.26 (0.35)	5.64***	C	0.45 (0.42)	3.90**	C	0.09 (0.12)	4.74**	C
	다양한 문제해결형	0.50 (0.29)		A	0.70 (0.37)		A	0.85 (0.47)		A	0.38 (0.27)		A

p<0.0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부부문제와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부부간 문제해결행동을 유형별로 분류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처, 갈등해결, 의사소통의 개념을 포괄하는 문제해결 행동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혼남녀들의 문제해결행동 유형을 파악하였고, 이 유형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기혼남성의 부부간 문제해결행동 유형은 권위적, 이성적, 수동적, 부정적 문제해결행동 유형으로 분류되며, 기혼여성들은 적극적, 방어적, 수동적, 다양한 문제해결행동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들 유형들을 종합해볼 때 문제해결과 관계유지에 따른 적극적-소극적, 긍정적-부정적 차원으로 개념상 분류될 수 있다. 즉 남성의 이성적 문제해결행동 유형과 여성의 적극적 문제해결행동 유형은 적극적-긍정적 차원에 해당되며, 남성의 부정적 문제해결행동 유형과 권위적 문제해결행동 유형, 여성의 다양한 문제해결행동 유형과 방어적 문제해결행동 유형은 적극적-부정적 차원, 수동적 문제해결행동 유형은 소극적-긍정적인 차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혼 남성과 여성들을 비교해볼 때, 수동적 문제해결행동 유형을 제외하고는 문제해결행동 유형에 성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설명되어진다. 즉 사회에서나 가족안에서 남성에게는 권위와 힘이 주어지므로, 기혼남성들은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권위 또는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 배우자를 움직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반면, 여성들은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힘이 부족하므로 방어적으로 되거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문제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므로써 관계를 통제하려는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부부관계에서

성에 따른 힘의 불균형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이 부부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해결 자세를 많이 보이는 이유는 여성들이 자기 삶에 있어서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더 이상 조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긍정적, 부정적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기혼남녀 모두에 있어서 부부간 문제해결행동 유형별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동질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네째, 기혼 남성의 경우 문제해결행동 유형에 따라 친족관계 문제, 관리적 문제, 심리적 문제, 위협적 문제특성을 경험하는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들의 경우 친족관계 문제를 제외한 관리적, 심리적, 위협적 문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적 문제해결행동 유형에 속하는 기혼남성들은 다른 유형에 속한 남성들에 비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권위적 문제해결행동 유형 남성들이 친족관계, 관리적, 심리적 문제를 자주 경험하였다.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해결행동 유형, 방어적 문제해결행동 유형의 순으로 다른 유형의 여성들에 비해서 관리적, 심리적, 위협적 문제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문제로 부부간에 대립하는 빈도에 있어서 다른 유형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기혼남성의 부정적 문제해결행동 유형과 권위적 문제해결행동 유형, 기혼여성의 다양한 문제해결행동 유형과 방어적 문제해결행동 유형은 적극적-부정적 차원에 속하는 유형들이라는 점이다. 또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기혼남녀 모두 문제해결행동 유형들이 문제 상황에 따라 일관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해결행동 유형에는 문제상황 변인보다 부부간에 문제로 인한 잦은 대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문제해결행동 유형과 문제특성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보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유형분포면에서도 기혼남녀 모두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행동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부부문제가 성격상 대체로 만성적이고 해결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부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기능적인 반응을 보일뿐 아니라, 부부간의 바람직한 상호관계 훈련이 아직까지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및 임상에서 혼용되어 사용되는 대처나 의사소통, 갈등의 개념들을 문제해결이라는 하나의 틀속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증적으로 우리나라 부부들이 어떠한 문제해결행동 유형들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들을 분류해주는 문제특성을 탐색하므로써 임상에서의 내담자나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을 차별화하기 위한 첫단계의 경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양한 표집을 하지 않아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산층에 한정시켜 결론지어야 한다는 문제점과 유형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인 변수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또한 부부간 문제해결행동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른 반응행동 이므로,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좀더 심도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김정옥(1985). 도시부부의 갈등해결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 폭력행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3(2), 91-110.
- 2) 송말희(1990). 기혼 남, 녀의 부부간 갈등정도과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47.
- 3) 송성자(1985). 한국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숭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4) 유은희(1994). 상담가족의 부부간 상호작용. *한국 도시가족의 부부문제 연구 : 한국가족상담 교육연구소 개소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연구보고서* 1, 40-53.
- 5) 이영숙(1990). 부부간의 지위부조화와 갈등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49-67.
- 6) 이정순(1990).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75-190.
- 7) Berg, I.K. & Miller, S.(1993). 해결중심적 단가가족치료. *가족치료연구모임*(역). 서울 : 하나의학사.
- 8) Burggraf, C.S. & Sillars, A.L.(1987). A Critical examination of sex differences in marit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54, 276-294.
- 9) Canary, D.J. & Cupach, W.R.(1988). Relational and episodic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conflict tactics. *J.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305-325.
- 10) Carver, C.S. & Scheier, M.F.(1994). Situational coping and coping dispositions in a stressful transact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 184-195.
- 11) Choi, H.(1992). The process of caregiving stress among Korean caregivers for the elderly : Social support coping and psychological health. Unpublished manuscript, Cornell University.
- 12) Christensen, A. & Heavey, C.L.(1990).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the demand 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conflict.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1), 73-81
- 13) Christensen, A. & Shenk, J.L.(1991). Communication,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non-distressed, clinic, and divorcing couple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458-463.
- 14) Folkman, S. & Lazarus, R.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15) Guerney, Jr., B. G., Guerney, L. & Cooney, T. (1985). Marital and famil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programs. In L. L'Abate(Ed.).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Vol.2). Illinois : The Doorsey Press.
- 16) Kantor, D. & Lehr, W.(1975). *Inside the family*. San Francisco : Jossey-Bass.
- 17) Knudson, R.M., Sommers, A.A. & Golding, S.I. (1980).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modes of resolution in marital conflict.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5), 751-763.
- 18) Marx, E.M. & Schulze, C.C.(1991).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in depressed students. *J. of Clinical Psychology* 47, 357-369.
- 19) Mattlin, J.A., Wethington, E. & Kessler, R.C.(19

- 92). Situational determinants of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 103-122.
- 20) Miller, P.C., Lefcourt, H.M., Holmes, J.G., Ware, E.E. & Saleh, W.E.(1986). Marital locus of control and marital problem solving. *J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1), 161-169.
- 21) Putnam, L.L. & Folger, J.P.(1988). Communication, conflict, and dispute solution. *Communication Research* 15(4), 349-359.
- 22) Rausch, H.L., Barry, W.A., Hertel, R.K. & Swain, M.A.(1974). *Communication, conflict, and marriage*. San Francisco : Jossey-Bass.
- 23) Rettig, K.D.(1993). Problem-solving and decision-making as central processes of family life : an ecological framework for family relations and family resource management. *Marriage and Family Review* 18(3/4),186-222.
- 24) Rusbult, C.E., Johnson, D.J. & Morrow, G.D.(1986). Impact of couple patterns of problem solving on distress and nondistress in dating relationships. *J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0(4), 744-753.
- 25) Sabourin, S., Laporte, L. & Wright, J.(1990). Problem solving self-appraisal and coping effects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J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6(1), 89-97.
- 26) Skolnick, A.S. & Skolnick, J.H.(1986). *Family in Transition*. Boston : Little, Brown & Company.
- 27) Snyder, D.K.(1979).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LA :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28) Stephen, T.D. & Harrison, T.M.(1986). Assessing communication style : a new measure. *The American J of Family Therapy* 14(3), 213-234.
- 29) Straus, M.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9.
- 30) Thompson, L. & Walker, A.J.(1991). Gender in families. In A. Booth(Ed.), *Contemporary Families :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31) Vincent, J.P., Weiss, R.L. & Birchler, G.R.(1975). Dyadic problem solving behavior as a function of marital distress and spousal vs. stranger interactions. *Behavior Therapy* 6, 475-487.
- 32) Witteman, H.(1988).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 Problem conceptualization and communication use. *Communication Monographs* 55(Dec.), 336-359.